濟州島民俗調査

——古城里와 水山里의 歲時風俗과 部落祭를 중심으로——

李 杜 鉉

一. 序 言
二. 里勢一般
1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2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三. 正 月
1 정월멩질
2 醮祭
3 本鄕堂굿
4 家庭信仰
5 立春과 十二支日
6 대보름날 행사
7 도채비 방쉬
四. 二月 영등제와 寒食
五. 三月 삼진날
六. 四月 초파일
七. 五月 端午
八. 六月 流頭와 伏날
九. 七月 七夕과 百中祭
十. 八月 秋夕
十一. 九月 神房의 생신일
十二. 十月 시만국대제와 무쉬귀패날
十三. 十一月 冬至
十四. 十二月 臘享과 除夕
十五. 閏달
十六. 結 言
提報者名單
參考文獻

一. 序 言

濟州島民俗硏究의 첫착수로서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와 水山里의 事例를 중심으로 歲時風俗과 堂굿을 考察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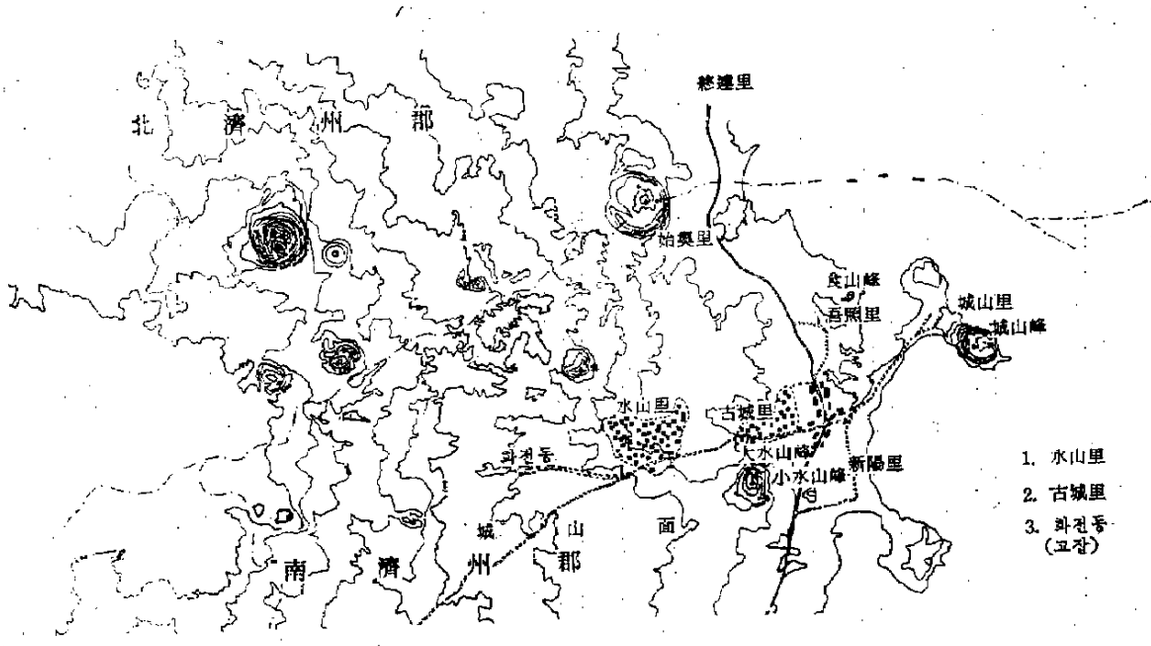
濟州島는 木浦에서 南쪽으로 142km의 海上에 있는 우리나라 섬중에서 제일 큰 섬으로 東經 126度 10分～126度 58分과 北緯 33度 12分～33度 34分 사이에 位置하며, 面積은 本島가 東西約 80km, 南北 約 40km, 海岸線은 200餘km이며, 總 181,957ha이다.

人口는 10年전인 1970年에는 全島人口가 35萬名이었고, 濟州市人口는 8萬名이었으나 1979年 10月 現在 全島人口443,708名(男子 215,041名 〈48.5%〉, 女子 228,667名 〈51.5%〉)이고, 家口는 101,046戶 그중 農家가 54,650戶(54%),

非農家가 46,396戶(46%)이고, 濟州市는 15萬名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다. 또 上水道設置는 1968年度부터이고, 1973年부터는 住宅改良이 시작되었다.

筆者의 濟州島踏査는 1956年 7月과 1970年 5月의 短期滯在에 이어 이번 1979年에는 9月부터 이듬해 3月初까지의 6개월간 비교적 장기체재를 하였으나 그러나 1년 12개월의 한 週期를 채우지 못했고, 또 歲時行事의 現場을 골고루 參與觀察하지도 못하였으므로 本報告書의 내용은 提報者와의 面接에서 얻은 資料를 그것도 水山里와 古城里의 提報者의 提報를 주로 하였다.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와 水山里——



二. 里勢一般

1.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古城里는 南濟郡 城山面 14개 行政里(始興里・吾照里・城山里・古城里・水山一・二里・新陽里・溫坪里・蘭山里・新山里・三達一・二里・新豊里・新川里)중의 하나이며, 濟州市에서 一周道路를 따라 東廻線으로 45.5km, 西歸浦까지는 40km, 北쪽 吾照里까지는 2.5km, 東쪽城山里까지는 5km, 南쪽 新陽里는 3km, 西쪽 水山1里까지는 3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

濟州島의 自然部落을 山間部落, 中間部落, 海岸部落으로 나눈다면 古城里는 본래 海岸部落에 속하였으나 古城2里가 15年전에 新陽里로 獨立하여 海岸部落을 이루고 있는 지금은 中間部落같은 느낌이며 또 그 일부는 一周道路邊의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南쪽으로 古城오름이라고하는 大水山峰(137m)이 있고, 一周道路 건너편에 水山오름이라고 하는 小水山峰(42m)이 마주보고 있다. 古城里 酺祭堂이 있는 大水山峰은 이 一帶에서는 제일 높은 오름이다. 大水山峰마루에 올라보면 東쪽 가까이에 城山峰이 보이며, 城山浦까지 논과밭이 펼쳐있고, 東北쪽 食山峰밑에 吾照里가 바라보이며, 東南쪽에는 新陽里와 그 앞바다가 보인다. 또 西北쪽으로는 水山1里와 水山坪이 바라 보인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旌義縣城郭條에 보면 大水山防護所城과 小水山烽燧가 각각 이 오름들에 설치되어 있었던것을 알 수 있다.

氣候는 중앙관상대 기상연보(1978년판)를 보면 濟州市의 年平均氣溫은 15.8°C이고, 降水量은 연평균 1,079.8mm, 風速은 연평균 3.5m/s, 最大風速은 年 20.3m/s이고, 西歸浦는 연평균기온이 16.5°C, 降水量은 연평균 1,280.7mm, 風速年平均 3.2m/s, 최대풍속은 19.5m/s이다.

濟州市와 西歸浦와의 거의 중간에 위치한 古城里와 水山里는 年平均氣溫도 중간정도이고, 降水量은 濟州市보다는 훨씬많고, 西歸浦보다는 적다. 바람은 여름에 南東風이 불며, 겨울에는 北風 내지 北西風이 불고, 태풍이 불면 피해를 입는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古跡條에 보면 「古城 在古旌義縣即吳湜分縣時所築至今完固」라고 하였는데, 古城은 즉 朝鮮太宗 16年(1416)에 旌義縣이 設置될때 所築되어 지금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 城터가 남아있다. 또 壬辰倭亂(1592~98)이 끝나자 바닷가 吾照里안카름(안마을)에 설치되었던 陣이 古城里와 水山里쪽으로 옮겨졌고, 나중에는 防護上편리한 山村인 城邑城으로까지 옮겨가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東쪽에 古城里와 水山里가 있고 水山峰이 있는 것처럼 西쪽 涯月面에도 水山里와 古城里가 있고 水山峰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高麗 元宗 12年(1271) 金通精(?~1273)이 珍島에서 金方慶등이 이끄는 官軍에게 패하여 濟州로 入島할 때 먼저 東쪽 古城里一帶에 本據를 두었다가 風水地理上 位置가 좋지 않다고하여 혹은 官軍에 밀려서 西쪽 缸波頭古城으로 옮긴 탓으로 양쪽에 같은 地名이 남게되었다고 傳한다고 한다. 이 史實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러한 口傳이상의 것을 濟州島에서는 얻지 못하였다.

古城里는 上中下洞으로 나누이며(下洞은 큰동내 또는 城內洞이라고 하고, 中洞은 坪垈洞이라고도 한다) 15개班으로 나누어져 있다. 약 490戶로 800세대에

가깝고, 人口는 男子 1,401名, 女子 1,428名 計 2,829名이다.(1979.12. 현재) 古城里의 姓氏別은 鄭·洪·金·韓·吳·高·李·朴氏등의 順으로 구성된 雜姓마을이다.

古城里에 있는 東南國民學校(12學級이상)는 古城·新陽·吾照里의 3개里의 아동들 약 1,000名이 通學하며, 外地(主로 湖南)에서온 學生數가 전체의 약 1/4이 된다. 이 數字는 西歸浦와 濟州市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고 한다. 城山面에는 日帝時代에 東南國民學校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東南國校와 始興·城山·水山·蘭山·新山·豐川國校등 7校가 있다. 城山中學校와 城山水產高等學校(漁撈科·製造科·機關科)도 古城里에 있는데 城山面 一帶의 學生들이 통학하고 있다. 公共機關으로는 面事務所, 里事務所, 郵遞局, 單位農協, 開發委員會, 古城·新陽漁村契, 새마을婦女會, 潛水會(古城·新陽里會員 합쳐서 약 600名이 된다) 새마을青少年會, 새마을青年會가 있고, 公共利用施設로는 새마을會館, 共同倉庫, 물탱크(上水道用)가 上洞윗쪽에 있고, 里事務所에는 有線放送과 行政電話가 갖추어져 있다. 住宅改良事業은 現在 70% 가까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病院 세곳과 藥局, 理髮館, 食堂, 茶房등은 一周道路邊에 위치하고 있다.

城山面事務所는 현재 古城里 一周道路邊에 위치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吾照里에 있다가 日帝時代에는 日人들이 많이 居住하는 城山里로 옮겼다가 解放後 6.25事變전에 古城里로 옮겼다고 한다.

따라서 5日마다 서게되는 5日장(현재는 4日과 9日에선다.)도 面事務所를 따라 옮겨졌다가 古城里에서는 鄕舍앞 넓은터에서 장이섰으나 지금은 편리한 一周道路邊에서 장이 서게 된다. 牛島에서 장보러 많이오고, 특수행상인들은 濟州全域에서 모여오고, 舊在面과 表善面 사이의 영세행상인들도 모여온다. 商店의 대부분은 外地에서 온 사람들이 경영하고, 古城里 사람은 극소수라고 한다.

古城里는 一周道路에 의한 버스편으로 濟州市에서 1시간 40분, 西歸浦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린다.

通婚圈은 里內婚이 50%정도이고, 里外婚으로는 이웃마을인 城山里, 吾照里, 新陽里, 水山里등지와 통혼하고 始興里에서 古城里로 시집오면 집안일이 잘안된다고 하여 꺼리고, 終達里에서 始興里와 古城里로도 시집을 잘 오지 않고, 서로 통혼을 꺼린다고 한다.

이것은 濟州島文化의 地方差를 살필때 옛 濟州牧管이었던 北部와, 西歸浦에서 始興里에 이르는 옛旌義縣에 들었던 東部와 大靜縣에 들었던 西部의 셋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고 하는데, 北部의 南端마을인 終達里와 東部가 시작되는 첫마을인 始興里사이에는 生活風習의 차이에서오는 이유와 風水地理說에서오는 영향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옛旌義고을에 널리 퍼졌던 뱀神崇拜를 꺼려, 牧管과 大靜사람들이 旌義고을 사람들과 통혼을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또 古城里 一帶에서는 新山里와 통혼을 꺼리는데, 이것은 新山里가 유일하게 島內에서는 漢拏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높은山을 못보니 웃어른을 몰라보고 버릇이 없다고 하여 상대를 안한다고 일러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에 日帝時代까지도 班常을 가리고 특히 바닷가 사람들을 천하게 보고 통혼을 안한데서 나온 말일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解放후는 많이 달라졌고 개방되었다고 한다.

古城里에서도 島外進出로는 在日僑胞가 제일 많다. 濟州全域에 걸쳐 55세 이상되는 사람으로 日本 특히 大阪에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은 젊은사람들은 대부분 陸地에 나가 살고 있다.

文化施設로는 라디오 323대, T.V.수상기 213대, 전화는 성산포우체국을 통하여 연결되지만 180대, 전축 144대, 재봉틀 105대, 新聞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구독자가 많으나, 서울, 경향신문, 한국, 조선일보, 제주신문등, 계 413부를 구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서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전에는 동아일보를 50부 가량, 思想界 40부이상 구독할때도 있었다.

電化事業은 1차로 1967년에 城山浦를 중심으로 東南일부와 古城·城山里를 합하여 46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로 吾照, 新陽, 古城里 1부를 실시했고, 3차로 水山과 溫坪里에 電氣가 들어 왔다.

上水道는 물탱크를 올려 시설한것이 약 10년된다.

道路鋪裝은 水山2里까지 실시한것이 7년이 된다.

公認宗教機構로는 佛教寺刹이 「복천사」를 비롯하여 세곳이 있고, 佛教信者가 里民의 약 70%를 차지하여 제일많다. 그밖에 天主教會, 長老教會, 安息教會, 여호와의 證人教會도 있고, 終達里에서 시작된 天地大安教信者도 있다.

土地利用現況은 耕地面積이 밭 231ha, 논 13.4ha, 계 244ha이고, 非耕地面積은 대지 35.2ha, 임야 238.4ha, 기타 105.3ha 계 623.3ha이다.

主要農作物은 육도, 보리, 고구마, 유채, 밀감, 채소, 콩, 참깨등인데, 요즈음은 經濟作物인 고등채소를 많이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감람 같은 것을 비닐하우스는 없이 露地에서 그대로 越冬시켜 한폭에 現地에서 4~500원씩 받는다. 溫暖한 濟州島에서만이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農藥과 金肥에 의한 새 農事法에서 오는 變化는 따로 고찰되어야 할 問題이다.

家畜保有狀況은 소 143마리, 돼지 271마리, 닭 3,941마리, 개 52마리 등이다.

參考로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濟州牧土產條에 보면 「山稻, 黍, 稷, 粟, 菽, 豆, 蕎麥, 麥, 雉, 馬, 牛」등을 들고 있는데, 耽羅志(1653)의 土產條도 이와 같으며, 다만 粟대신 粱을 넣고 있다. 1948年의 4.3事件 以後로 牛馬의 數는 격감했고, 특히 馬匹의 수는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

農機具保有現況은 동력경운기 45대, 인력분무기 45대 동력분무기 28대, 탈곡기 9대, 제승기 15대, 절간기 74대, 원동기 3대이다.

배를 가지고 있는 船主는 3인이며, 모두 10t. 미만으로 6t.級의 배들이다. 海藻類와 魚貝類를 잡는 海域은 始興, 吾照, 城山, 古城, 新陽, 溫坪里로 연결되는 城山面 海岸線중에 古城里 海域이 行政區域에 따라 정해있고, 古城里의 海女들의 부수입은 年 6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른다. 잠수에 의한 미역등 해초의 채취뿐 아니라 소라등 貝類의 양식도 하고 있다.

2.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水山里는 一里와 二里로 나뉘어져 있는데 一里는 8개반으로 350戶, 人口는 男子 842명, 女子 870명으로 計 1,712명의 마을이다. 古城里에서 西쪽으로 2.5km 거리에 다소 傾斜진 丘陵地帶(海拔 64m, 古城里의 낮은 地帶는 23m)에 위치하고 있다. 山間部落이라기 보다 中山間部落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金尙憲編의 南槎錄(1602)에 보면 「水山廢城」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寒雲衰草掩荒城 云是胡元放馬坰
舊致牧奴多跋扈 屢勤都統遠興兵
通精驚血秋螢碧 肖古妖魂鬼火青
聖化只今覃內外 海邦耕鑿樂遺氓

高麗 忠烈王때 元兵들이 來島하여 水山坪에서 放牧한 故事와 金通精의 敗

戰도 언급하고 있다. 그후 약 50년뒤의 기록인 李元鎭編 耽羅志(1653)에는 旌義縣 防護所條에 「首山 在首山 城內有客舍 軍器庫 中廢改修」라고 보이는데 이때에 水山廢城을 새로 수리하였던것을 알 수 있다.(耽羅志에서는 水山을 首山으로 적고 있다.)

지금도 水山國民學校 뒷쪽으로 水山鎭城의 일부가 남아있고, 약 200年은 되어 보이는 누룩나무를 중심으로 祭壇을 만든 鎭안할망堂이 있다. 이 堂은 旅路를 지켜주는 神으로 배를 탈 食口가 있는 집에서는 水山里一帶뿐 아니라 濟州각처에서 찾아와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 白色·綠色·紅色등의 종이나 헝겊의 폐백과 祭酒와 祭物을 차려서 촛대에 불켜고, 香을 피우고 치성을 들인다. 이때 神房과 함께 가는것이 보통이다.

鎭안할망에 대해서는 水山鎭城을 쌓을 때 「내참이못」 쪽에 돌담을 쌓았으나 자꾸 무너져서 女子를 犧牲으로 바치고 비로소 築城을 完了하였으므로 그후로 그女人을 鎭안할망으로 모신다고도 하였다.

水山國民學校의 學生數는 약 250名이 되고, 이 마을에 中學生과 大學生은 약간명 있다. 公務員은 敎員과 警察官등을 포함하여 70명가량 된다. 公共機關으로 里事務所, 里開發委員會, 새마을婦女會, 새마을靑少年會, 새마을靑年會등이 있고, 새마을會館이 있다.

文化施設로는 거의 各戶마다 라디오가 있고, TV受像機는 약 200대, 新聞은 100戶 가량이 받고 있다.

公認宗敎機構로는 佛敎寺刹이 하나있다.

姓氏別을 보면 康, 金, 高, 吳, 韓, 朴, 李, 趙, 鄭氏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 雜姓마을이다.

土地利用現況을 보면 耕地面積은 밭이 234.5ha이고 논은 없다. 非耕地面積은 대지 46.7ha, 임야 402.6ha, 기타 60.4ha이며 계 744.2ha이다. 주요농산물은 보리, 유채, 고구마, 감귤, 산두(육도)등이나, 전에는 피가 대종을 이루워, 한동네(약30戶)에 연자매가 하나꼴로 있어 모두 9곳에 연자매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里民의 年間 平均 所得은 3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收入이 다양하나 감귤수입으로 1천만원까지 올리는 집도 있다한다.

家畜保有現況은 소 228마리, 돼지 360마리, 개 60마리, 닭 2,654마리, 말 34마리, 오리 50마리, 토끼 100마리 등으로 古城里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農機具保有現況은 동력경운기 42대, 인력분무기 55대, 동력분무기는 21대 탈곡기 6대, 제승기 14대, 절간기 116, 원동기 3대등이다.

水山里交通便은 濟州市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6회, 西歸浦로는 7회, 城山浦로 왕래하는 편은 하루에 9회가 있다. 그중의 몇회는 水山二里까지 연장된다.

中山間部落인 水山里는 1948年의 4.3事件때 15일간이나 海邊마을로 소개되었고, 水山二里는 그때 모두 마을이 燒却당하였다고 한다. 도로 마을로 돌아온뒤에는 自體防衛를 하여 人命被害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三. 正 月

1. 정월멩질

濟州島에서 新正과 舊正을 지내는 地域的 分布를 보면 濟州市는 半半程度이고, 濟州市에서 西쪽으로 一周道路를 따라 涯月·翰京, 大靜, 安德·中文, 西歸, 南元·表善面까지는 新正을 지내는 사람이 많은 반면 濟州市에서 東쪽으로 朝天, 舊左, 城山面등에서는 여전히 舊正을 지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古城里의 경우 약 490戶중 新正을 지내는 집은 겨우 2~3戶 정도라고 한다.

1980年 2月 16日 舊正날은 다소 쌀쌀하기는 하나 맑은 날씨였다. 밭에 보리와 배추등이 파랗고, 陽地쪽 돌담밑에는 노란 금잠화들이 피어있어 벌써 봄을 느끼게하고 멀리 漢拏山이 구름이 나부끼는 속에 雪山의 偉容을 보여 靈山의 印象을 짙게 하였다.

濟州島에서는 일반적으로 正初날이 밝으면 먼저 祖上에게 茶禮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야 서로 歲拜를 한다. 支家들에서 먼저 차례와 세배를 지낸다음 맨나중에 宗家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다. 그러나 古城里 鄭成淳氏家만은 一家 여섯집이 아침에 먼저 종가인 鄭成淳氏집에 모여 合同歲拜를 하고나서 各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뒤에 종가에 모여 合同차례를 지냈다. 東萊鄭氏인 鄭成淳氏는 4형제였으나 三弟가 사망하고, 末弟는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두 兄弟家族만이 古城里에 있다. 入島先祖는 南元面에 종가가 있으나 古城里에는 八代째 따로 살고 있다고 한다.

四代奉祀祭床외에 옆에 낮게 따로 亡弟床을 차려 놓았다. 祭需는 메, 갱, 떡 3種(시리떡, 송편〈뚱그란 떡〉, 새미떡〈만두같은 떡〉, 우찌떡〈또는 우지시라고도 하여 기름떡이며 일곱개를 고이는데 七星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밖에 절변, 중과, 약과, 강정, 요외등을 명절떡으로 들 수 있겠고, 여름제사에는 밀가루로 만든 상해〈霜花〉떡을 쓴다.), 쇠고기 산적, 지숙(祭熟海魚, 옥도미가 귀하게 쓰인다), 고사리탕쉬(고사리나물), 메밀묵(두부처럼 꼬챙이에 끼었다), 무를 죽처럼 삶은것, 사과, 귤, 계란부친것, 祭酒는 甘酒와 淸酒를 쓴다. 이러한 큰床외에 문床과 안상을 차렸다.

茶禮는 設床후 一同의 參神, 降神, 獻盞, 侑食, 撤匙, 一同再拜로 辭神, 飮福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陸地에서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本祭의 祭次이겠으나 다른 점은 本祭전에 門前祭와 조왕고사를 지내고, 本祭후에 안칠성을 위하고, 모든 제사가 끝난후에 香爐床의 그릇에 각종음식을 조금씩 떼어넣은 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 그 음식을 지붕을 향해던져 「걸명」하는 일이다. 골미떡으로 국수를 만들어 차례전에 국제를 지내는 집도 있다.

이날 차례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한시간 정도로 끝났다. 鄭氏家는 正初와 秋夕의 두차례 차례를 지내고, 寒食과 端午節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水山里의 康重浩氏에 의하면 濟州島의 節祭는 원래 陸地部와 마찬가지로 元旦, 寒食, 端午, 秋夕의 네번이었으나 日帝末期인 戰爭時期에 官에서 簡素化를 하도록 强制한 뒤로 元旦과 秋夕의 두번으로 줄었다고 한다. 陸地에서는 현재 元旦의 차례와 寒食과 秋夕의 省墓가 일반적인 節祭인 것 같으나 濟州島에서는 秋夕에는 八月들면서 미리 墓所의 伐草는하지만 秋夕날에 省墓하는 사람은 적고 대체로는 집에서 차례만 지낸다고 한다. 그대신 3月에 時祭를 지내므로 그때가 墓祭가 된다.

멩질옷 즉 설빔은 전에는 어린아이들까지 韓服과 신까지 새로 마련하였으나 요즘은 洋服을 많이 입고, 나이든 사람들이나 韓服을 차려입는다. 日帝末期보다는 그래도 요새는 여유가 생겨서인지 名節에 韓服을 입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歲拜는 子息들은 父母에게, 年少者는 年長者나 親戚어른들께 새해問安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濟州島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德談이 오가게되고, 歲饌

으로는 편(친떡), 곤떡, 모밀떡, 적갈, 淸酒나 燒酒, 요즈음은 귤등을 낸다. 歲酒는 近來에 자기집에서 담그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게에서 사다 쓴다. 그럴만한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2. 酺 祭

古城里 酺祭의 祭神은 「局神之位」와 「司命大神」의 兩位이다. 前者는 이 地域守護神이라고 하였다.

祭日은 舊12月下旬이나 舊正初에 里長이 鄕會를 소집하여 舊正月下旬의 「或丁 或亥」로 擇日하고 祭儀의 豫算規模와 祭官들을 선정한다.

祭官은 전에는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贊者, 謁者, 奉香, 奉爐, 司樽, 奉爵, 奠爵, 典祀官등 10餘名을 選出하였으나 요즈음은 三獻官과 大祝등 4~5명 정도를 선출한다고 한다.

祭物은 전에는 소두마리를 잡아 올렸으나 차차 간소화되어 解放後에는 도야지를 잡아올렸고, 7~8년전부터는 닭을 잡아 올린다고 한다. 이밖에 祭物로는 메, 시루떡, 脯, 魚霈, 각종 채나물, 과일, 祭酒와 광목이나 白紙의 幣帛등 다른곳의 脯祭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고 한다.

祭次도 子時에 처음 紙榜을 써붙이고,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飮福, 撤籩豆, 焚幣의 順으로 진행된다.

祝文을 古城里 酺祭笏記에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司命大神之靈, 伏以皇皇明神來, 自西北軍威整齊, 號令嚴肅枉臨孤島, 警惶村落, 若此不已民生息伏唯明靈特受蔭澤, 煽以和氣屛彼妖跡, 家無身病, 野掃牛疫, 雨順風調, 百穀蕃殖, 官灾禍難一時遠逐, 出征殘命凱旋, 古屋圈境淸淨, 老少同樂, 涓滋上丁, 敢奠菲薄, 謹以牲幣醴齊粱(粢), 盛庶品式陳明薦尙 饗

祭壇은 마을에서 걸어서 20分이내의 거리인 大水山峰 中턱 東北向 숲속에 마련되었는데, 잔디가 깔린 공터에 돌을 半圓形으로 돌려쌓아 神域을 만들고 그속에 역시 돌을 쌓아 네모난 祭壇을 만들고, 왼쪽위에 局神之位, 바른쪽 아래에 司命大神을 모셨다. 그앞에 돌香爐가 마련되어 있었다. 祭壇왼편 아래쪽에는 역시 돌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祭官들이 祭祀때 차일을 치고 대기하는 依幕場所이다.

水山里 酺祭는 전에는 正月과 7月, 1年에 두번지냈으나 지금은 正月에만 지낸다. 舊正月 대보름안으로 鄕會를 열어 祭日과 祭官과 豫算등을 정하는

데 보통 酺祭 3일전에 鄕會를 연다. 祭官은 10여명이라고 한다.

酺祭壇은 大王山 南쪽 동산에 있는데 雜石으로 돌려 神域을 만들고 그안에 역시 돌로 祭壇을 쌓고, 아랫쪽에는 祭官들의 依幕돌담이 있다고 한다.

祭日은 역시 丁日 아니면 亥日인데 祭費는 戶當 600원 정도라고 한다.

3. 本鄕堂굿

儒式部落祭인 酺祭에는 男性들만이 參與하지만 한편 巫式部落祭인 本鄕堂굿에는 女性들만이 참여한다.

水山本鄕堂은「하로산울웨당」이라고 하고, 城山面 水山一里, 二里(고잡 〈花田洞〉이라고 한다), 古城里, 吾照里, 城山里의 다섯마을에서 섬기는 本鄕堂이다.

堂神은「하로산 섯어깨소못된발에서 솟아난」「하로산 울웨무루에 좌정하던 토지지관 삼천벵매흔집」으로 「만민자손에 서천제민공영받아오던 흔님」 즉「하로산 삼천벵매또」「수산하로산한집」과「금벡조」,「용왕국부인」이다.

玄容駿氏에 의하면 濟州島本鄕堂神系列은 ① 松堂系神 ② 漢拏山出生系神 ③ 外來神系神 ④ 其他로 나눌수 있는데 漢拏山出生系神의 系譜는 아래와 같다. 一男 城山面水山里堂神, 二男 涯月面水山里堂神, 三男 南元面 上·下禮里堂神, 四男 西歸邑好近里堂神, 五男 中文面中文里堂神, 六男 中文面檣達里堂神, 七男 中文面上·下猊里堂神, 八男 安德面楷山 倉川里堂神, 九男 大靜邑日呆里堂神등이다.

「水山里堂은 濟州에서도 센堂의 하나다. 李牧使때 불질렀으나 타지않았다」(康重浩夫人談)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本鄕堂神에 대한 믿음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李牧使云云한것은 肅宗28年(1702)에 當時 濟州牧使 李衡祥(1653~1733)이「濟州는 堂오백에 절 오백」이라고 일러오던「三邑의 淫祠와 절집 130여소를 불사르고, 巫覡 400여명을 杖하여 각각 歸農시켰다」(金錫翼著 耽羅紀年)는 故事를 말하는 것이다.

또 堂神像이 있는데 10여년전에 당시 堂집이 허술하여 洞內젊은이들이 入隊전에 장난으로 神像의 목을 빼어갔으므로 지금 神像에는 머리가 없고, 그 후 얼마 안가서 그들도 죽었다고 한다.

지금 神堂은 50餘坪이 되어보이는 垈地에 돌담을 돌렸고, 堂집은 玄武岩

을 쌓아 올리고, 스레이트로 지붕을 한 10間정도의 새 堂祠인데 上樑記에 보면 辛亥年(1971年) 六月二十二日 午後에 改修한 것을 알 수 있다. 3~40년전까지는 草屋이었다고 한다. 堂안에는 마루를 깔았고, 正面으로 壁가운데에 매달아 유리문여다지를 단 神壇이 만들어져있어 神像을 모시고 있다. 神像은 자손(洞民)들이 바친 흰옷을 입고 있으나 머리가 없는것이 처량하다.

祭日은 正月 초이틀 新過歲祭, 정월 보름 영등제, 이월 열사흘 영등 송별제, 칠월 여드레 마불림제, 동짓달 열나흘 새가슬(곡식)을 바치는 시만국대제일등이다.

1980년 2월 17일(舊 正月初二日) 本鄕堂굿 날 아침은 쌀쌀하나 햇살이 눈부신 快晴한 날씨였다. 古城里의 鄭氏의 案內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水山一里마을밖 東쪽 울퉤마루 솔속의 하로산 本鄕堂을 찾는 婦女들이 祭需를 대바구니에 지고, 삼삼오오 모여든다. 모여든 婦女子들은 150名 가량되는데 50~60세 이상이 3분2 가량이고, 20~40세는 3분의 1정도가 되어 보인다. 100여명이 堂집안 마루에 비좁게 앉았고, 미처 들어가지못한 사람들은 堂집밖에 앉았다. 男子라고는 두사람의 神房뿐이고, 나를 안내한 鄭氏는 얼마안있어 돌아갔다. 古城里出身으로 濟州市와 西歸浦에 사는 婦人들도 몇사람 참가하였다.

祭需는 흰쌀 돌래떡이나 메밀로 만든 거문돌래떡이 主이고,(神에게 올리는 떡은 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쌀, 바다고기, 닭, 계란, 과일, 술, 돈(100원에서 200원 사이), 소지용으로 白紙, 돼지고기는 꺼리므로 올리지 않고 吾照里에서는 굿하기전 7일간을 肉食을 금한다고 한다. 닭은 노란색 장닭을 바치는데 神壇밑에 30여마리의 닭들이 발목과 나래쭉지를 묶인채 모여있다. 이때가되면 노란장닭 한마리에 돈만원은 한다고 한다. 神壇안에는 神像앞에 堂굿제상을 차렸고, 婦女들이 바친 祭物들이 가득차 있다. 神壇앞 횃대에는 양쪽으로 자손들(部落民)이 幣帛으로 바친 旗, 팔지꺼리, 흰옷, 붉은옷, 노란옷등의 피륙이 걸려 있다.

堂맨신방은 현재 (1980년)8년째 堂굿을 맡아오는 水山里居住 趙仁培神房(45세)이다. 그는 代代로 世襲巫였던 趙權平의 養子로 들어온 사람이다. 趙權平의 뒤를 이어 그의 딸 趙玉仙女神房이 맡아오다가 8년전에 작고하자 養弟인 趙仁培가 맡게 되었으나 모든면에서 그의 누이보다 못하다는것이 衆論이고 특히 그의 過飮癖을 싫여한다. 또 한사람의 神房이 그를 도왔는데 古

城里 居住의 鄭萬淳(51세)氏이다. 그는 그의 祖父가 神房이 었다고 한다. 또 한사람 古城里居住의 巫女高氏가 소미 역할을 맡아 趙神房을 도왔다.

堂굿은 9시 30분에야 갓에 쾌자차림을 한 趙神房이 밖에서 「삼천벵맷대세움」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삼천벵맷대는 4m는 되어보이는 푸른 대나무에 위로부터 푸른기, 태극기, 흰기, 붉은기를 달았다. 樂器는 북, 장고, 징, 설쉐를 사용하였다.

趙神房이 堂안으로 들어와 神壇앞에서 북장단에 맞춰 「초감제」를 시작하였다. 먼저 「배포도엽」치고, 「날과국」섬기고, 「연유」닦고나서 高女巫가 「새드림」으로 不淨치고, 다시 趙神房이 「군문」열어 신청궤를 할때 本풀이를 간단히 하고, 算받아 분부사룀을 하였다.

먼저 水山一里부터 분부를 받는데 「里長님 좋습니다. 부락 서기도 좋고, 말슴, 새마을 회장님네도 좋습니다…… 일본방면 가신 사손들, 군인나간 자손들, 서울방면 가신애기들도 걱정없고, 배를 타고 가신 애기도 걱정없고, 차를 몰고 댕기는 운전수들도 걱정없읍니다」「공무원, 직장생활하는자손들, 대학교가신 애기도, 중학교가신 애기도 걱정없읍니다」

「상단골, 중단골, 하당골도 걱정없읍네다」 등으로 마을사람들의 吉凶을 골고루 분부사뢰면 그때마다 분부받는 婦女들은 「아이구 고맙수다」를 연발한다. 이어 「학교앞동네, 네살된 아이, 일곱살된 아이 자동차길을 명심하고」「올해 서귀포 댕기는 자손은 사월, 유월 두달 부디부디 명심합소」라고 조심할 일들을 사뢰면 婦女들은 「막아줍소」를 연발한다.

이같이 올해에 무사할것과 조심할일들 즉 吉凶事를 아뢰면 그때마다 마을 婦女子들은 眞摯한 반응을 보인다.

분부사룀을 받는 마을 순서는 水山一里다음이 고잡(水山二里)이고, 古城里 吾照里, 城山里의 순이다.

다음은 (토)지관 든다고하여 本鄕드림(迎神) 거리이다. 趙神房이 亂暴하게 도랑춤을추고,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表情을 짓고, 神의 시늉을 내며 本鄕神이 되어 밖에서부터 神堂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자손」들이 일어서서 배례하며 本鄕神을 맞이하면 趙神房은 祭床위에 감상기 놓고, 분부사룀다. 이때 상·중·하당골들이 燒紙올리고 拜禮하고나면, 堂안의 「자손」들이 水山, 고잡, 古城, 吾照, 城山의 순으로, 高소미가 돌어올린 역가상에 역가(돈)를 상위에 놓고 차례로 재배한다. 이 거리가 당굿의 頂點을 이루는 것 같

았다.

이어서 鄭神房이 지장본풀이를 立唱하였다. 東海岸別神굿의 중타령과 비교될 내용이다. 이어서 鄭神房이 백맷기·팔치바치기가 있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갔다. 9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시 30분에 주요한 거리는 끝난 셈이다. 2시까지 점심시간이었으나 이때 마당 한쪽에서 제각기 모아앉아 소미와 鄭神房에게서 算을 받고, 남아서 算을 받지않을 사람들은 이미 歸家하기 시작하였다. 점심은 소금으로 간을 하지않은 돌래떡을 노놔먹는것이 고작이다. 男女老少가 함께 참여하는 京畿道의 都堂굿에 비하면 婦女들만의 堂굿이어서 그런지 매우 간소한 편이다.

다음은 鄭神房이 厄맥이를 하였는데 도액을막고, 이어서 각집의 액막음을 하였는데 장닭을 犧牲으로 썼다. 「소대령 말대령 대신 닭대령」했고, 「差使에게 목숨대신 짐승을 주는데 목숨대명」으로 닭을 바치는 것이다. 장닭을 바친집부터 차례로 厄막음 축원사를 읊고, 닭을 머리위에서 돌린다음 문지방에 내리쳐서 죽여서 堂밖으로 내던진다. 닭은 까치와 더불어 우리나라 神話에서는 神聖獸의 하나이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닭을 희생으로 쓰는 例를 볼 수 있다. 「서낭의 말」이라고도 하는 巫俗속의 닭의 犧牲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비교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趙神房, 鄭神房, 高巫女들에 의하여 三三五五 모여서 자손들이 算을 받았다. 바친 쌀로 算을 놓고, 홀수면 凶하고, 짝수면 吉하다고 한다. 占친쌀을 자손들에게 주면 입에넣어 먹는다. 제비받기로 占친쌀은 부대에다 넣어 神房이 가져간다. 제각기 가족의 수대로 가장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올해의 신수를 占쳐받는데 한시간이상 걸렸다. 끝으로 趙神房이 닭잡아 던지고 술, 떡, 고기등 祭物을 던지고, 算받아 절하고, 祭物을 물린다음 밖의 삼천뱅맷기를 堂안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神을 神堂안으로 모셨다고 하고, 神을 占住시킨다고 하여 도진거리가 끝났다. 저녁해가 기울기시작하는 다섯시에야 굿은 모두 끝났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神房들만이 남았다. 濟州島에서는 마을굿이나 개인굿이나간에 祝願하러 갈때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안하고 또 굿이 끝나면 信者들과 神房들은 서로 인사를 안하고 헤어진다. 굿의 神聖性 때문인 것 같다.

水山과 古城의 영등제는 古城里는 海女들이 主가 되어 水山本鄕堂에가서 正月 15日에 영등굿을 하여 영등하르방·영등할망을 맞이하고, 2月 13日에

「영등할아버지 잘 가라」고 다시 굿을 하고, 2月 15日에 배를 만들어 新陽里 바다에 내려가서 배방선을 한다.

일뤠당(兎山堂)은 6月 7日에 神房과 함께 가서 모신다.

龍王祭는 山村에서는 보통 지내지 않으나 가족중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이나 배를 타고 섬밖으로 旅行할 사람이 있을때는 제상을 차려 주부가 혼자서 정성을 드리거나 神房을 빌어 용왕제를 드린다. 용왕제 제물은 메밥떡, 실과, 계란, 술 등이나 海魚는 쓰지 않는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또 용왕제를 지낸후에는 반드시 山神祭를 지내야만 덕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4. 家庭信仰

新年家祭로서는 儒敎式으로 지내는 土神祭와 神房을 빌어서 하는 門前비념 즉 철갈이와 조왕제와 멩감등이 있다.

土神祭는 正月중 명운에 맞는날을 擇日하여 子時에 행한다. 有故時에는 三月로 연기할 수 있다. 「土地之神位」라고 紙榜을 써 놓고, 家門의 平安을 비는데 울타리안의 터신을 위하는 것으로 主人이 祝文을 읽는다. 古城里의 鄭氏家의 경우 主婦가 마련하는 祭物은 稻粱黍稷 4곡으로 메와 시루떡을 짓고, 닭을 날것으로 올리고, 脯醯, 미역, 미나리, 전각, 무채등 4채와 밤 대추등 과일과 生甘酒등 날것을 쓴다.

祭日전에 올래에 금줄을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금하고 祭日밤에 禁줄을 걷운다. 鄭氏동네에서 土神祭를 지내는집은 세집이 있다고 한다.

門前비념은 正月에 神房을 빌어서 하는데, 門前神을 主로하나 조왕, 안칠성, 밧칠성등 家內諸神에게도 新年의 家內平安을 빈다. 안칠성은 집집마다 고팡(庫房)에 모시고 밧칠성은 집뒤 空地에 주쟁이를 덮어놓은 것인데 그 안에 기와 두장 혹은 항아리를 놓고, 쌀, 조, 보리, 콩, 팥등 오곡을 넣고, 7색(무지개) 헝겊을 넣고 모신다. 이때 주쟁이를 새것으로 갈아 덮는다. 祭物은 家門마다 각각 다르나 보통 祭祀와 유사하고 厄막이 床에 닭을 산것으로 쓴다.

이밖에 조왕제와 生業神을 위하는 멩감굿을 하는 집도 있다. 멩감은 새해를 맞아 1년간의 행운을 비는 굿인데, 보통 농가에서 많이 지낸다. 農神을 위하는 세경본풀이를 하여 농사가 豊年들 것을 빌고, 집안의 祖上을 놀리고,

문전액막음을 하여 1년간의 집안의 무사와 행운을 비는 것이다. 帝釋멩감굿은 舊正月16日 濟州市 三徒一洞 金氏宅에서 神房 安仕仁氏가 하는굿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같이 濟州島의 歲時風俗에 있어서도 男性中心의 酺祭등 儒式儀禮는 社會的으로 公認된 外的信仰行爲요, 女性中心의 巫式儀禮인 本鄕堂굿과 영등굿, 일뤠당굿, 문전비념, 조왕굿, 안칠성, 밧칠성, 멩감굿등은 儒敎의 合理主義的 觀點에서 認定되지 않은 內的인 信仰行爲로 내려오는 것으로 信仰行爲에 있어서의 이 같은 男女의 二重構造를 볼 수 있다.

5. 立春과 十二支日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까지 正初에 닭과 호랭이 그림을 그려 붙이는 것을 보았고, 밤에 야광이가와서 신을 걷어가는데 신을 잃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立春에는 午前에 女子는 삼가서 남의 집에 가지 않는다. 女子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고 한다. 간혹 춘방(春榜) 즉 春帖子를 써붙이는 집이 있는데 「立春大吉 建陽多慶」과 같은 글귀가 보통이다. 전에는 立春占으로 신수점, 농사점(보리뿌리점등) 날씨점등을 보았다.

立春날에는 집안에 털있는 동물이 찾아드는것을 꺼려하는 털날보기가 있다. 正月初에는 전에는 財物을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였고, 出他도 삼갔다.

上子日에는 집에서 일을 하여 뚝딱거리면 쥐가 많아진다고하여 아무일도 안하고, 上巳日에도 일을하면 뱀이 보깬다고 하고, 上丑日에도 소막에 가서 고치거나하면 소에 害롭다고 하였다. 水山里에서는 十二支日중 이 세날을 본다고 한다.

6. 대보름날 행사들

정월 열나흘날이나 보름날 저녁에 달이뜨면 달의 상태를 보아서 달점을 친다. 달이 갓을 쓰면 즉 달무리가 지면 그해에 비가 많겠다고 한다.

또 콩 열두개에다 열두달의 표시를 하여 짚으로 싸서 물독에 넣는다. 이것은 콩부름 또는 달부름(月滋)이라고 한다. 이튿날인 보름날 새벽에 그것을 꺼내어 보고, 그콩알들이 붇고 안붇는 것으로 그달이 비가 많이 오겠다

혹은 가물겠다는 것을 징험하였다.

正月十四日밤이나 대보름날 밤에 주로 부녀자들이 모여서 놀다가 한사람이 한그릇씩 쌀을 사발에 넣어 물을 조정하여 한솥에 넣어 산메를 짓는다. 이렇게하여 사발밥이 다된 결과를 보아 모양이 좋게 가운데가 볼룩하게 되었으면 吉하고, 가운데가 음푹 패이거나 설익었거나 과해서 밥이 잘 안되었으면 그해 運厄이 안좋다고하여 미리 막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메점이라고 한다. 떡추렴으로 보름떡으로 점치는것은 모돔떡점이라고 한다.

대보름날 踏橋는 없었고, 正月놀이로서는 윷놀이를 많이 놀았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다가 대보름에 厄연을 띄웠다. 연은 주로 정연과 개골래기연(가오리연)이었다. 제기차기는 거의 노는 일이 없었고, 요즈음은 돈치기를 한다. 특히 윷놀이의 윷은 우리나라 以北地方은 콩윷, 中部地方은 장작윷이 보통이지만 제주도는 나무로 만든 작은 윷과 풋윷을 쓴다.

E.B. Tylor는 일찍이 1878年에 아세아起源의 윷놀이가 1500年前의 어느시기에 아메리카新大陸으로 傳播되었을것이라고 추론한바 있다. 北美原住民들의 윷놀이의 윷의 形態, 그 投下法, 得點의 算定法등은 우리의 윷놀이와 酷似한바가 있다.(青柳まちこ 1977:101-124) 이제 陸地部의 윷놀이의 여러 형태와 濟州島의 그것까지 아울러 文化人類學的인 비교연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正月 대보름날은 厄막는 날이라고 하여 아직도 「방쉬」를 하는때가 많으며, 「家和萬盛」이라고 써붙이고 度厄行事를 하는집도 있다고 한다.

男女의 나이가 三災를 당한사람은 三災符籍을 만들어 문전에 붙이고 젯상을 차려비는데, 神房을 불러다가 닭을 머리위에서 돌리다가 밖에 던져 죽여서 厄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것은 水山本鄕堂굿에서 각집의 厄을 물리칠 때도 같은 방법이었음을 이미 보아왔다.

符籍은 보통 朱砂로 그리는데 제주도에서는 쇠피, 돗피, 흰장닭피, 朱砂등을 물감으로 써서 그려야 한다고 한것은(秦聖麒 1975, p.47) 보다 原初的인 呪術的由來를 말하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시사라 할 수 있겠다.

바다에서 조난사를 당한 사람의 碑石은 바다를 향해 세워지지만 그런사람의 祭祀는 가령 초저녁이라도 바다물이 밀물로 들어올때 지낸다.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正初에는 될수있으면 出行을 삼간다. 털날보기, 正月愼日, 出行破(敗)日 (陰曆으로 每月 初5日, 14日, 23日) 보기등

을 한다.

반코시(告祀)와 촌코시의 두가지 코시를 正月에 하는 집이 있다.

土亭秘訣은 立春날이나 대보름에 흔히 본다. 달마중 行事는 별로 없고 달집 태우기도 보지못했다고 한다. 줄다리기나 편싸움도 없었다고 한다.

7. 도채비 방쉬

도채비 방쉬(放邪)는 陸地에서 제웅직성이 든 사람이 제웅을 만들어 14일 밤에 길에 내버려 厄을 막듯이 제주도에서는「그해의 운수가 나쁘다고 판단이 내린 사람은 정월대보름에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재비를 만들고 그 운수 나쁜 사람 대신으로 삼도전 길거리에나 아니면 바닷가에 모셔가 버려서 액막이를 하는 수가 있다」(秦聖麒 1975:37)고 하였다. 그러나 古城里의 鄭氏나 水山里의 康氏는 도채비 방쉬를 물으니, 海村部落에는 흔히 있으나 山村部落에는 없다고 하고, 도채비귀신 이야기로 옮겨갔다. 도채비의 尊稱으로 제주도에서는「영감」「참봉」「야채」라고 부르나 대표적인 명칭은「영감」이다. 도채비귀신을 위하는 사람은 海村에 많은데 가령 舊左面 金寧이나 漢東里, 城山面에서는 吾照里, 溫坪里, 新山里 등지에서 많았고, 古城里에도 전에 몇집 있었으나, 그후 모두 망했다고 한다. 도채비 귀신을 위하면「急成急敗」한다고 하여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나, 이영감신은 심술이많은 귀신이어서 조금만 정성이 부족하면 집에 불을 놓아 亡하게 된다. 가령 祖上祭祀나 굿할때도 반드시 먼저 대접해야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먼저 바쳐야한다. 어떤경우에는 밭에 점심을 하여가면서 깜박 점심을 바칠것을 잊고 갔더니 돌아와보니 이미 집 네귀에 불이붙고 있더라는 이야기, 또는 도채비를 위하는 사람이 푸마시가 필요하여 이웃마을 사람에게 부탁할려고 찾아갔더니 벌써 도채비 귀신이 와서 부탁하고 간 뒤였다는 이야기 등등 간접적으로 들은 많은 이야기가 퍼져 있으나 직접으로 도채비귀신을 위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없다. 도채비祖上을 위하는 일은 절대비밀이며, 남이 알게되면 그 집은 亡한다고 하여 그집 主婦가 위하며 神房도 관여안한다. 그러나 神房은 그집에서 굿을 할때 눈치로 자연히 알게 되나 모르는체하고 비밀로 한다. 또 영감신을 위하는 집에서는 大門밖에 흰돌을 놓아둔다고 하였고(또다른 이야기로는 여드렛堂을 위하는 집에서 그렇게 하였다 한다) 또 그집밭에 도채비는 7형제이므로 수수 일곱대를 심어서 표가 난다고도 하였다. 이같이 도채비신

을 위하는 일은 절대 비밀이나, 도채비귀신을 위하는 사람들끼리는 알게되어 서로 혼인도 한다고 한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혼인을 할때는 상대방이 도채비귀신을 위하는집인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본다고 한다. 도채비귀신을 위하여 얻어지는 急成急敗는 當代에 한한다고 하나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고 子孫들에게까지 번져나가기에 요즈음은 兎山여드렛당을 위하는 집보다 더 혼인을 꺼린다고 한다. 도채비귀신은 「수수떡·수수범벅을 좋아하고 네발짐승의 열두뼈나 시원섹섹한 횟간이나 더운피」(玄容駿 1976:309)를 좋아한다. 도채비귀신을 모셔들일려면 수수범벅과 돼지고기등의 제물을 갖고 어두운 밤에 바닷가에 가서 모셔들인다고 한다. 이 도채비귀신을 물리칠려면 버드나무막대기로 치고 똥을 눈다고도 하였지만(玄容駿 1976:284) 鄭氏이야기는 집에 白馬를 키우고, 白馬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면 무서워서 도망가며 그때 白馬가죽을 뒤집어 쓰면 害를 입지않는다고 하였다.

제주도에서 古城里와 水山里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도 여러차례 도채비귀신에 대하여 들었고, 安仕仁 神房에게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性格을 종합하여보면 ① 富神, 豊漁神, ② 共同體의 神 ③ 祖上神, 氏族守護神 ④ 대장神 ⑤ 疫神등(張籌根 1972:462)인바 豊漁神으로서는 배서낭으로 도채비를 위하는 사람이 현재 城山浦에도 船主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韓公翊談) 특히 疫神으로서 海女나 寡婦등 美女를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따라 붙어 病을 준다. 도채비神이 人間女와 交媾하여 病을 주는 일은, 도채비神을 위하는집 主婦는 男便이 出他한 경우에는 도채비神이 男便처럼 나타나 交媾하기에 主婦는 항상 顔色이 파리하다 하였고, 또 그집에 過年한딸이 있어도(이웃에서 혼인을 꺼리니 婚期를 자연 놓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도채비神이 나타나 交媾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도깨비神의 交媾와 그것이 富와 관련된다는 觀念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분포인것 같다. 村山智順의 「朝鮮の鬼神」(p.188)에도 그 例가 보이고, 筆者가 鳳山탈춤의 藝能保有者인 金先峰氏(59세, 女)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자기 친구인 料亭마담이 꿈에 나타난 草笠童모습의 도깨비鬼神과 交媾하여 營業이 繁昌하고 돈은 벌었으나 그 일이 지겨워서 모든것을 淸算하고 敎會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해방후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다고 한다.

영감놀이굿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는 영감神의 交媾가 그女子에게 疾病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이점이 處容說話를 考察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주지

만(玄容駿 1968) 도깨비神은 日本의 오끼나와(沖繩)의 妖怪의 일종인 기지무나야(キジムナー)와 類似點이 많으나(張籌根 1972:462-463) 차라리 더 나아가 日本의 쯔끼모노 (憑物)와의 社會人類學的 比較考察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四. 二月 영등제와 寒食

2月行事의 첫째는 영등제이다.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水山과 古城里의 영등제는 正月 15日에 영등하르방이 든다고 하고, 2月 15日에 나간다고 한다. 13日에 水山本鄕堂에서 영등굿을 하고, 15日에는 각마을에서 영등굿을 하고, 그날 배를 만들어 바닷가에 내려가서 배놓는다고 배방선을 한다. 이때는 船主등 男子들도 참가한다. 그러나 古城里의 경우 海女會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술한되나 돈이라도 갖고 가는사람들도 있다. 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濟州牧 風俗條에 濟州俗에 이달의 乘船을 금한다고 한것은 2月영등제 기간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된다는 禁忌를 말한것 같다.

寒食名節은 2月이나 3月의 淸明後日이나 淸明同日을 한식날로 잡게되는데 今年(1980年)은 2月 淸明이 들었다. 전에 四名節(正朝・寒食・端午・秋夕)에 節祀를 올릴때는 寒食에도 墓祀를 지냈으나 日帝末期에 正朝와 秋夕의 두명절에만 節祀를 지내게 한뒤로 대부분의 집에서는 山所에 가지않게 되었다. 그러나 秋夕에 山所에 가는집 보다는 寒食에 墓祀를 지내는 집이 더 많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秋夕에는 8月초부터 伐草만하고 祭祀는 집에서 지낸다. 寒食은 先墓에 손보는 날로 관념되어 있어 묘소의 손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時祭는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2月과 3月 또는 10月에 지내게 되는데, 2月이나 3月에 時祭를 지내는 집에서는 그때 봄의 省墓를 겸하는 셈이된다. 鄭氏家나 康氏家는 3月에 時祭를 지내는데 南郡에는 3月 時祭가 많다고 한다.

섣달 신구간에 할일을 못하면(집수리나 이사등) 淸明날에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이날에 한다.

草家가 많으나 「香娘閔氏」 즉 노래기 쫓는 行事는 모른다고 하였다.

五. 三月 삼진날

삼월삼진날에는 제비가 다시오고 진달래꽃도 피지만 花煎놀이 같은것은 없었다고 하였다. 城邑里의 「鼎沼岩 花煎놀이」는 旌義縣監이 베풀던 兩班놀이에 불과했던 것 같다. (秦聖麒 1975:147)

삼월삼진날에 목씨(박씨)를 심으면 잘된다고 하여 박씨를 심었다. 박으로 식기를 만든 「콜락박새기」나 잠수들이 쓰는 디웅박 즉 「태왁박새기」도 이제는 플라스틱이나 나일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집안에 안심는 나무는 백양목과 버드나무를 울타리안에 안심는다고 한다.

水山里에서는 昨年과 再昨年에 이달에 敬老會를 가졌다고 한다.

매역해경 즉 미역解禁은 보통 3월중순에 있어 古城里에서는 이때 潛嫂들이 바다에 든다.

六. 四月 초파일

사월초파일에는 절에가서 觀燈하고 佛供을 드려 福을 빈다. 水山里에는 절이 하나있고 古城里에는 세곳이 있다. 水山里에 절이 생기기 전에는 信者들은 終達里의 금봉사에 갔었는데 이곳에 절이 생긴다음에도 終達里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本鄕堂굿에 參禮하나 天主敎·基督敎·天地大安敎信者들은 堂에 안나간다. 역시 마을에서 佛敎信者가 제일많다.

이날 東風이 불면 농사가 잘된다고 일러왔다.

七. 五月 端午

水山里에서는 端午日에는 祖上에 節祭를 지내는 집이 더러 있고, 젊은 사람들은 씨름이나 달리기 같은것을 하고 바다에가서 낚시질도 하며 하루를 쉬었고, 쑥을 따다 쑥떡도 해먹었다고 한다. 그네 뛰기나 창포머리감기 같은 것은 없었다. 이날 대나무를 심었다.

八. 六月 流頭와 伏날

6月 流頭에는 婦女子들이 머리감기를 한다. 伏날에 개장을 먹는일은 제주도에서도 「폐오래전부터 몸에 밴 풍속」(秦聖麒 1975:226) 같다고 하고, 「복아장」도 해먹는다고 하지만 水山里의 경우는 陸地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으로 근자에와서 더욱 유행하는것 같다고 하고, 古城里에서는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伏날에 개장을 먹는다고 하였다. 그대신 「正狗不食」이라고 해서 正月에는 개고기는 안먹고 계절을 가려서 먹는다.

6月 스무날에 닭잡아먹으면 萬病通治로 보약이 된다고 하여 집집마다 닭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

이달에 메밀파종을 하고, 밭발림을 하였다.

九. 七月 七夕과 百中祭

7月 七夕에는 七星을 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佛敎信者중에는 절에가서 七夕 佛供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牽牛織女의 전설은 이야기 되었으나 乞巧行事는 없었던것 같다.

제주도의 十五日의 百中祭는 주로 마소의 번성을 백중할으방(農畜神)에게 비는 牛馬祭이다. 소나 말을 기르는 사람들만이 14日밤 祭物로 메, 떡, 바다고기, 닭이나 계란, 과실, 祭酒등을 차려가지고, 소나 말이 있는 목장 즉 山이나 들로(墓所가 없는 깨끗한 곳)찾아가서 子正에 祭를 지낸다.

牛馬가 病도 나지 말고 밭에도 들지 않게 해 달라고 빈다. 古城里에서는 남에게 여름동안 소관리를 맡겨서 放牧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百中에는 자기네 소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百中祭를 지낸다. 소는 여름동안 放牧하고 10月이 되면 洞內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름 몇달동안 관리비로 한마리당 2~3만원씩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百中에는 百中祭만 지내고 烙印을 찍거나 귀표를 하는것은 10月上子日에 한다.

十. 八月 秋夕

8月들면 山所에 가서 伐草하여 秋夕전에 끝낸다. 요즈음은 8月들어 첫일요일에 많이들 간다. 秋夕날에는 正朝처럼 茶禮를 지내고, 飮福하고 하루를 쉰다. 대부분 山所에는 안가나 간혹 省墓하는 사람도 있다. 제주도는 이때 햇곡식으로 벼는 안나고, 잔에는 서속은 좀 일찍 나는수가 있었으나 요즈음은 서속은 심지 않는다. 水山里에서는 메밀을 심는집도 있다. 그러나 송편을 빚고, 제주와 과일을 마련하여 정월명절 다음가는 명절로 치나 지금은 東國輿地勝覽에도 紹介되어 있는 照里戲 즉 줄다리기나 씨름같은 놀이도 별로 없다.

掃墳후 약 10日 뒤에 마소를 먹일 촐비기 즉 꼴베기도하고, 초석짜기도 한다.

十一. 九月 神房의 생진일

重九日의 行事는 없고, 다만 28日이 삼시왕(명도조상)의 生日이라고 하여 큰굿을 한다. 이때 마을에서 그 심방을 빌어쓰는 당골들은 부조를 하게 된다. 陸地에서도 봄가을로 巫堂들이 자기집에서 神事굿을 하는데 이때 당골들이 모여오는 것과 같다.

十二. 十月 시만국대제와 무쉬귀패날

이때가되면 추수가 끝나고 햇곡식으로 제물을 장만하여 本鄕堂에 올리는 시만국대제(新萬穀大祭)를 올려 秋收感謝를 하였으나 요즈음은 거의 하지않는다고 한다. 正月의 新過歲祭와 맞먹는 가을의 큰굿으로서의 의의가 컸고, 특히 조, 벼따위의 오곡을 묶음채로 神에게 갖다 바치며 제를 지내는 마을도 적지 않았다(秉聖祺 1975:337)고 하는데 이것은 日本의 호가게(穗祭) 행사와 같은 것이다. 시만국대제의 폐지는 濟州島의 民俗社會가 農本社會로부터의 産業構造的 變化와 아울러 民俗信仰의 衰退등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케하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月上子日에는 마소의 귀표(耳標)를 하는 날이다. 소임자들은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장만하여 정해진 장소로 모여 祭를 지내고 한살짜리 송아지와 망아지의 귀의 한부분을 도려내고(그 짜른 모양에 따라 식별한다)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다. 이때 도려낸 귀의 한부분을 구워서 제숙으로 올려 제를 지낸다.(秦聖麒 1975:335) 송아지의 엉덩이에 찍는 烙印은 집집마다 다른데 古城里 鄭成淳氏집 낙인은 「巳」字이다. 글자 획수가 적은 가령 「大」「上」「中」「下」「卜」등 字를 정하여 등록한다. 요즈음은 牛馬의 數도 전보다는 적고, 송아지 엉덩이에 烙印을 찍는것이 애처롭기도 하여 귀에 번호딱지만 붙이고 낙인은 안준다고 한다. 官에 牛籍이 있어 번호딱지에는 一連番號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面의 누구의 소라는 것을 알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요즈음은 귀표를 하는일도 점점 없어졌지만 鄭氏의 경우 再昨年까지도 10月上子日에 墓도없는 깨끗한 들판에 나가 祭를 지냈다고 한다. 祭物은 잘차리면 메, 떡, 祭酒, 닭(또는 계란), 海魚, 과일등을 갖고 가는데, 고기는 날것을 갖고가서 祭場에서 굽는다. 요즈음은 미리 구워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은 유럽北端의 遊牧 Lapp族도 그들의 馴鹿의 귀를 째서 귀표를 하는 일이다.

十三. 十一月 冬至

冬至날에 팥죽을 써서 먹는다. 집안에 여러가지 神을 위하는 집에서는 고팡같은데 神들을 위해 팥죽을 바치나 祖靈에 대한 팥죽제사는 없다. 또 집의 각부위에 팥죽을 뿌리는 일도 없다.

이달 下旬이 되면 띠로 지붕을 간다.

十四. 十二月 臘享과 除夕

臘享날 즉 冬至후 제3未日에 전에는 藥이 된다고 하여 찰조로 엿을 고았다. 곤쌀 즉 흰쌀이나 수수를 넣어 고는 수도 있다. 엿은 먹기도 하고, 궂은 부스럼에도 발랐다. 요즈음은 날을보아 아무때나 만든다.

섣달그믐날밤에 天氣를 보아 하늘 위가 어둡고 아래가 훤하면 豐年이 들

고 반대로 아래가 어둡고 위가 맑아지면 凶年이든다고 한다. 또 이날 목욕하면 감기에 안걸린다고하여 목욕을 하였다.

大寒후 5日에서 立春전 3日의 7日간을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탈이 없다고 하여 이사나 집수리를 한다. 이때는 新舊歲官이 交替하는 過渡期間으로 모든 神들이 天上으로 올라가서 地上에는 神靈이 없는 것으로 관념되는 것이다. 만일 신구간에 이사나 집수리를 못하면 淸明날에 할 수 있다고 한다.

1969年 이후 新生活運動으로 6大弊習退治運動을 추진하였는데 그속에 신구간을 지키는 일도 弊習으로 들어있다.

섣달그믐날밤 守歲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十五. 閏 달

윤달이들면 공달이라고 하여 신구간처럼 百事不忌로 집수리나 壽衣만들기 등을 한다. 佛敎信者로 여유있는 사람은 生前豫修齋를 윤달에 올리기도 한다.

十六. 結 言

濟州島民俗을 알기위하여 더 늦기전에 濟州島에서 살아볼려고, 1979年度 第2學期의 6개月을 交流敎授로서 訪問하였었다. 우선 비교적 옛民俗이 남아 있다는 南郡의 東部地域에서 中山間部落인 水山一里와 海岸部落인 古城里를 對象地域으로 선정하고 濟州市에서 몇차례 왕래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들에 定住하지 않은 것은 이 조사를 미흡하게 만든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더 늦기전에라고 생각하였지만 시기도 이미 늦어있었다.

1969年에 濟州道는 新生活運動의 하나로 在來民俗 특히 堂굿이나 個人굿 같은 巫俗行爲와 신구간까지 퇴치운동의 대상으로 삼았고, 家庭儀禮準則도 行政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3年喪이 1年喪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은 堂이 부서졌으며, 巫俗行爲는 陰性化되었다.

城山面의 電化事業은 1967年부터 시작되어 70年代초에 들어서면서 古城里와 水山里에도 電氣가 들어와 레디오뿐만 아니라 T.V.도 보급되고(두집에

한대꼴로 T.V. 수상기가 있어) 今年 舊正날에는 鄭氏家의 경우 老少가 아침부터 舊正특별프로그램에 매달려 윷놀이를 비롯한 正初의 在來娛樂은 볼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또 電力에 의해 물탱크를 올리고, 上水道를 시설하여, 빗물받기나 물구덕을 지고 물깃는 情景은 사라졌다.

一周道路의 鋪裝은 물론 水山2里까지의 도로포장도 되어, 濟州市와 西歸浦의 中間地點에 놓인 古城里와 水山里까지도 하루 70여회의 버스便이 있게 되어 閉鎖的인 生活은 있을수 없게 되었다.

農業生產에 있어서는 재래의 주요농산물이었던 黍粟대신 육도, 유채, 고구마, 감귤, 고등채소재배로 바뀌면서 일손이 퍽 바빠졌다. 육도와 감귤 심지어 유채까지 農藥을 주어야하고, 除草와 剪枝등 감귤손질과 고등채소의 露地栽培로 겨울내 農閑期라는 것이 없어졌다. 일손이 바빠져서 옛 風俗은 제대로 지킬수가 없다는 것이다.

海村의 경우도 70年代에 들면서 海女들이 在來服 대신 고무로된 改良服을 입고, 1回의 潛水作業時間이 훨씬 길어졌고, 콕테왁(박테왁) 대신 나일론테왁을 쓰게 되고, 망사리도 나이론망사리를 쓰는등 변혁이 일어났고, 이런속에 龍王祭도 재래의 열번에서 두세번의 회수로 줄어드는 형편이다.

1930年代末의 日帝末期부터 生活簡素化의 行政壓力을 받아왔고, 解放과 더불어 復古的 雰圍氣가 다소 일기시작하였으나 이어 1948年의 끔직한 4.3事件이 일어나 山村과 中山間部落의 一部까지 焦土化되었고 6.25事變에는 新兵들과 많은 피난민들이 陸地에서 들어왔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濟州道開發은 5.16道路와 第2橫斷道路의 開通등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히 추진되어, 73年부터의 住宅改良事業은 一周道路邊을 위시해서 濟州村落의 外觀을 一新하였다. 60年代 후반부터 시작된 밀감재배의 대규모화는 70年代에 들면서 그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觀光事業은 70年代에 들면서 활발하게 되어 今年(1979年)의 경우 10月과 11月에 하루 5,000名의 觀光客이 入島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인 開發속에서 島內의 큰牧場과 밀감밭, 商街와 호텔등 觀光業所의 대부분은 陸地에서 들어온 資本主들의 소유가 되고, 相對的으로 濟州島民은 零細資本主로 남게되었다.(이러한 現象은 日本本土와 沖繩의 關係에 있어서도 深刻한 社會問題였다.) 觀光事業收益의 上昇과 더불어 青少年 犯罪率이 正比例로 上昇하여 「나쁜일, 못된일은 모두 陸地놈들이 와서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變動속에서 濟州島의 青少年들은 方言을 잊어가고, 어른들은 民俗社會의 變動과 함께 많은 在來民俗 특히 歲時風俗을 잃어가고 있다. 世界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傳統社會가 이른바 近代化의 물결속에서 많은 變容을 가져오면서, 얻은것과 더불어 또한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濟州島地域의 歲時 風俗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變動期의 現象을 여기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提報者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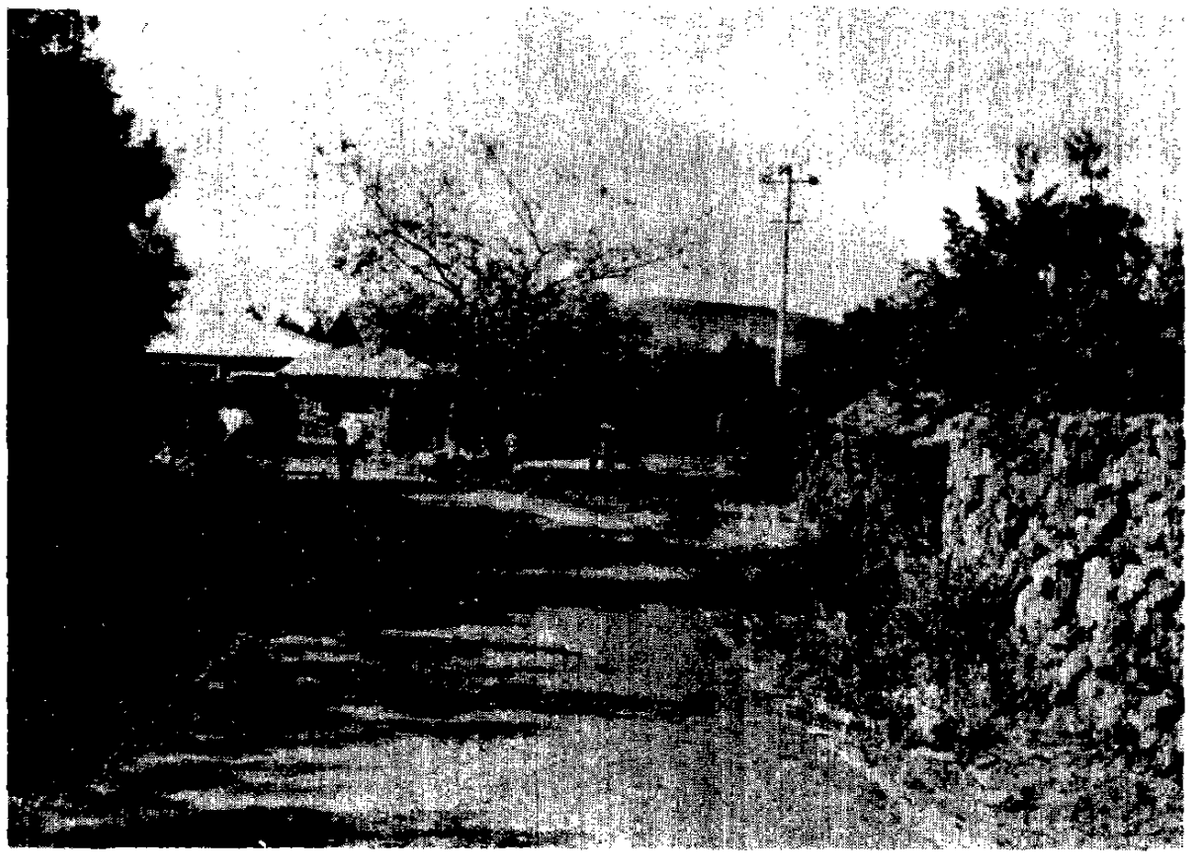
康重浩 (59세, 男)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鄭成淳 (63세, 男)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吳政勳 (50代, 前里長, 男)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韓公翊 (40代, 男)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參 考 文 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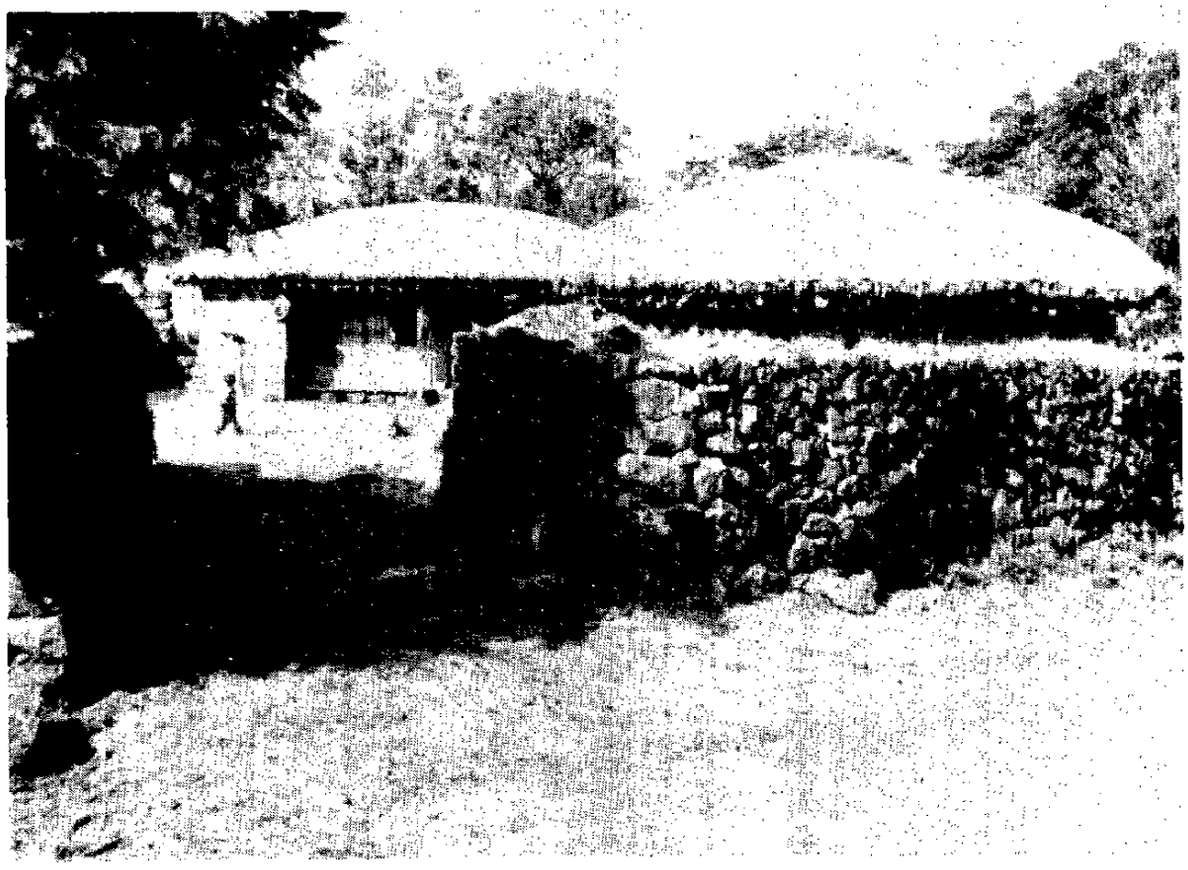
金邁淳撰, 1819, 洌陽歲時記
金尙憲著, 1602, 南槎錄
金錫翼撰, 1918, 耽羅紀年
村山智順, 1929, 朝鮮の鬼神, 서울, 朝鮮總督府
民俗學硏究所編, 1951, 民俗學辭典, 東京, 東京堂
青柳まちこ著, 1977, 「遊び」の 文化人類學, 東京, 講談社
吉田禎吾著, 1972, 日本の憑きもの, 東京, 中央公論社
李元鎭撰, 1653, 耽羅志
李荇等增修,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張籌根稿, 1972, 濟州島巫俗의 도깨비 信仰에 對하여, 箕軒孫洛範先生回甲紀念論文集, 서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濟州大學, 1978, 海村生活調査報告書 (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大學學徒護國團
濟州道廳編, 1973,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秦聖麒 著, 1975, 南國의 民俗(濟州島歲時風俗) 서울, 敎學社
玄容駿稿, 1968, 處容說話考, 국어국문학(39, 40), 서울, 국어국문학회
1976, 濟州島神話, 서울, 瑞文堂
1976, 濟州島傳說, 서울, 瑞文堂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洪錫謨撰, 1849, 東國歲時記

※ 본 논문은 197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 논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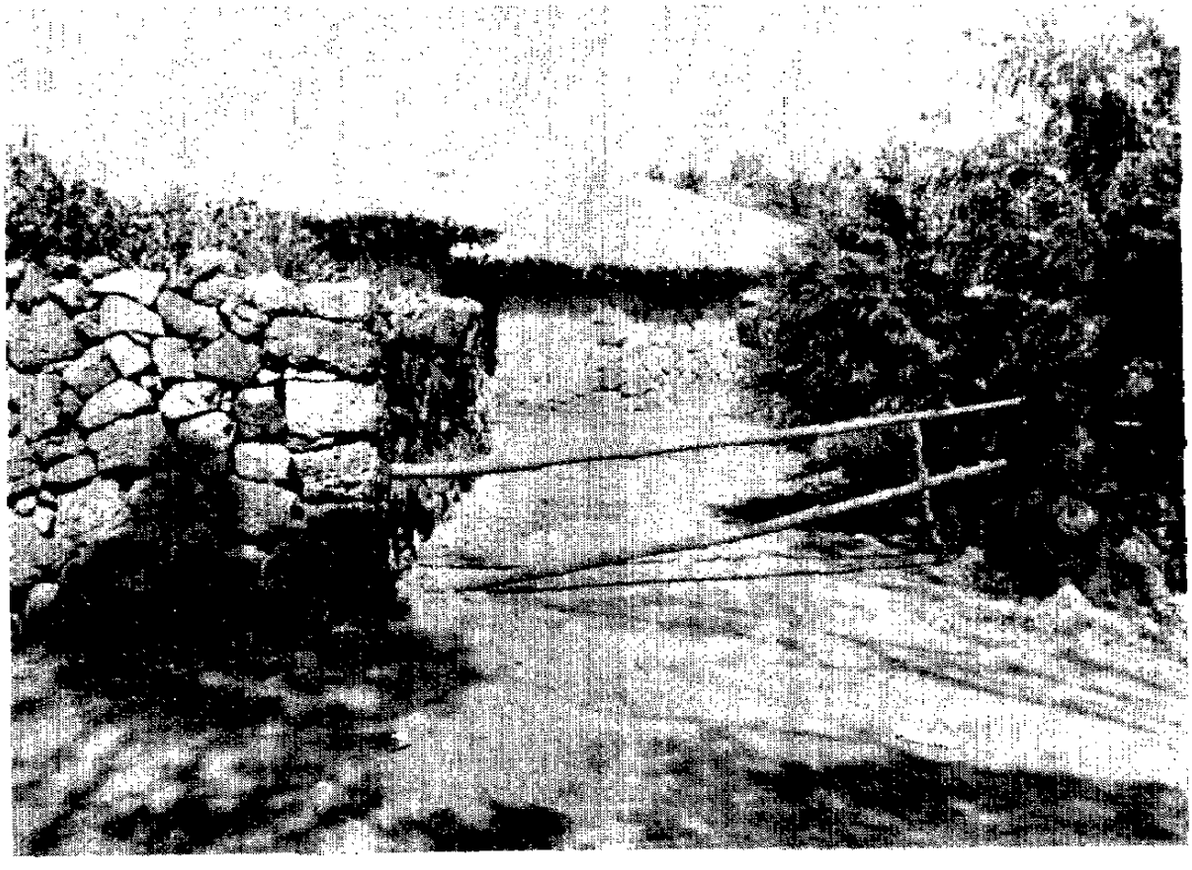
古城里 全景(大水峰上에서의 眺望)



水山里 마을길



水山里 民家



水山里 民家의 정쌀(또는 정낭)

←古城里
鄭氏家 茶禮

↑水山里
本鄉堂 外部

水山里
本鄉堂 內部→

←水山里 本鄕堂굿
(삼천벵맷대세움)

水山里 本鄕堂굿
(초감제)→

水山里 本鄉堂 神像→

←水山里 本鄉堂굿
(분부사룀)

水山里 本鄉堂굿(역가올림)

水山里 本鄉堂굿(算받기)

水山里 本鄉堂子(厄막음)

水山里 本鄕堂大(삼천백 맷기들이기)

水山里 鎭안 할망堂